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4권 1호(2014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기
출
판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이민경, 이희영, 조태린,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소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김일환(성균관대),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이기영(부산대), 이동석(Hiroshima University), 이민경(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4년 제4권 1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4권 1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논문

-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 김태원 1
-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은진 · 이교일 27
-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정유리 55
-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 최병두 83
-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잠재적 인식 유형과
다문화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 / 강운선 119
-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변수에 대한 일고
-다언어의 보편적 학습을 위하여- / 김명광 143

현장탐방

- 구미의 오색빛깔 매듭 뒤풀기 / 강민욱 · 강성진 · 조경숙 163

서평

-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2014 출판 예정) 제1부 “보편적 가치” / 이소영 181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4권 1호를 펴내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증대로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다문화 현상에 관한 다양한 경험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은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지구-지방화 과정에 의해 구조적으로 규정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하여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낯선 지역사회에 단순히 적응하게 되는 수동적 개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원주민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적 주제들이 동원되고 있다.

예로, 후설(E. Husserl)의 현상학에서 제시되는 생활세계와 감정이입론의 개념은 외국인 이주자들과 원주민들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윤리적 대안의 모색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사회에서 원주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세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생활세계 속에서 이주자들과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 만남과 상호 행동을 통해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생활세계 개념은 상이한 문화들의 공존과 이들 사이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공통된 생활양식과 경험을 가지게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생활세계 속에서 이주자와 원주민들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나아가 이를 매개로 공통된 문화의 창출 또는 문화적 융합을 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활세계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개념은 후설의 감정이입론(또는

타자경험론)으로 이어진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절대적 중심으로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나를 ‘저기’에 위치해 있는 타자로 설정해 보는 것, 즉 ‘만약 내가 저기에 있다면’하는 식으로 상상 속에서 가정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설정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를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사고는 최근 이른바 상호문화주의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활세계의 개념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구성원들이 상호행동과 이를 통해 공동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나 상대적 다양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처럼, 상호문화주의에서 ‘상호’란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이한 문화들 간 공허한 중간 또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들의 상호 교차와 ‘엮힘’을 뜻한다. 두 문화는 상호문화성이라는 어떤 공동된 범위 내에서 서로 촘촘하게 또는 느슨하게 서로 경계를 짓고 엮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사회와 다문화〉 4권 1호에서는 이러한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및 상호문화성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두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우선 김태원의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자’에 관한 연구는 후설 및 슈츠의 생활세계 개념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짐멜의 이방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을 개념화하고 또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 의하면, 결혼이주자는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한 사회의 문화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의 매개자이자 잠재적 가치 생산자로 이해된다. 즉 결혼이주자는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족이라는 가족제도 속의 부분적 존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치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은진과 이교일에 의해 제시된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생활세계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생활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울감의 주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이들은 다문화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예측 요인은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정(즉 가장 기본적인 생활세계)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물질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가족, 경제, 미래, 배우자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적 만족 수준을 의미하며, 생활만족도 역시 우울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정유리의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지원으로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민주도 외국인이주자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참여 특성을 조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이 논문은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및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병두가 제시한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설의 이론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이에 바탕을 둔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유의성과 한계를 다루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상호문화주의는 최근 서유럽에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이 한계에 처하거나 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 반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의 병렬적 공존을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회공간적 격리를 심화시켰다고 비판되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들 간 상호접촉과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상호문화(도시)정책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공간적 격리를 해소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최병두의 연구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정책이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할지라도, 신자유주의적 또는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유럽 국가들이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문화주의와 이에 바탕을 둔 다문화(주의)정책은 사회적 다양성을 함양하고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주요한 담론과 방안이 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잠재적 인식 유형과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에 관한 강운선의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와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고,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기본권 인정에 관하여 응답자(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조합적 다문화주의(55%)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34%)의 입장을 보였다. 다문화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반편견교육(27%)과 소수자인권교육(34%)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없음도 상당 정도(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문화교육(반편견교육 또는 소수자 인권교육)을 받은 집단은 이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문화인정, 반편견,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명광은 다언어의 보편적 학습을 위하여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변수’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타갈로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보편 문법을 개별 문법화 하는 장치인 매개변수가 형태론적 차원의 다양한 언어 현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통사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항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고자 한다. 범언어적으로 구현되는 보편문법과 개별언어를 구현시키는 매개 변수 설정은 언어습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보편문법의 집합이 무한하거나 매개변수

가 예측불가능하면 4세 이전에 언어 습득을 완성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항적 매개변수란 그 집합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이항적인 구성이며 이 두 개의 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상보성을 지닌 연산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편문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별 문법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개념의 매개변수가 어떻게 실제 언어 자료에서 투영되는지를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번 호의 '현장과 현장 사람들' 탐방기는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흔성 센터장과의 면담으로 구성되었다. 구미는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도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구미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정부에 의해 옛 이름인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장흔성 센터장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방문사업, 센터사업, 한국어사업,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생들이 강민욱, 강성진, 조정숙은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를 둘러보고 장흔성 센터장과 대담하는 과정을 통해 센터의 구성과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목조목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호의 서평으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저서,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에 대한 이소영의 심층적 논평을 실었다. 하비는 지리학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들은 거의 대부분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 책 역시 조만간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은 세계시민주의에 관한 비평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지리학의 재구성을 위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최근 공간의 개념과 지리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서평을 쓴 이소영은 정치학 전공자라는 점에서 이 책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독해한 느낌을 체계적이고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소영은 이 책에서 하비가 전형적인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학자들만이 아니라 급진

적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주의적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가 출간된 이후 4년째로 접어들게 되었다. 최근 마침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사업이 재개되어 등재후보지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물론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훌륭한 논문들을 제출해 준 투고자들과 논문을 심사해준 심사위원들, 그리고 학술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편집위원들과 묵묵히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 낸 편집간사, 그리고 창간호 이후 지금까지 인세를 맡아준 ‘푸른길’ 출판사에도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이 학술지가 독자들이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관한 진보적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실천적 의식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

생활세계는 모든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방인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단순히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할 뿐

상이한 문화들의 공존과 이들 사이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공통된 문화적인 표현 형식들을 창출해 나가는 것.

상이성의 인정과 상호존중을 매개로 한 공통된 문화의 창출. 문화적 융합.